

■ 2026 새해설계 김한중 장성군수

“체감형 군정…군민 삶 바뀌는 ‘대동 장성’ 미래 열겠다”

첨단3지구 신산업 거점화…복합 성장 거점 육성
국립심뇌혈관센터·데이터센터 등 미래 먹거리 확보

“군민의 삶이 체감적으로 바뀌는 성장, 모두가 화합하는 ‘대동(大同) 장성’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김한중 장성군수가 ‘군민 삶이 실제로 달라지는 변화’를 새해 군정의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며 대대적인 군정 청사진을 발표했다.

김 군수는 “이제 장성은 준비의 단계를 넘어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며 산업·관광·농업·복지 전반에서 구조적 전환을 예고했다.

특히 첨단3지구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육성과 1000만 관광객 시대 도약, 스마트농업 기반 구축, 생활SOC 확충을 통해 장성의 미래 10년을 여는 전환점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장성군 새해 군정 설계의 중심에는 첨단3지구가 있다. 이곳은 단순 산업단지를 넘어 미래 산업과 인재가 모이는 복합 성장 거점으로 육성된다.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 사업은 장성의 산업 지형을 바꿀 핵심 동력으로 꼽힌다. 연구소가 들어서면 의료·바이오 연구 인력과 관련 기업 유치가 뒤따라며 지역 경제 전반에 파급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광주 R&D특구 내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인공지능(AI)·클라우드·빅데이터 산업의 기반도 갖출게 된다. 군은 이 같은 신산업 인프라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으로 보고 있다.



관광 분야에서도 장성군은 ‘체류형 관광지’로의 도약을 본격화한다.

장성호와 황룡강, 측량산 편백숲으로 이어지는 자연 자원을 하나의 관광 벨트로 묶어 힐링·치유 중심의 관광 콘텐츠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측량산 일대에는 목재문화체험과 산림휴양을 결합한 공간을 조성해 사계절 관광객을 끌어들이 계획이다. 무료 관광택시, 지역 체험 프로그램, 문화공연 연계 콘텐츠도 확대해 ‘보고 싶게 가는 관광’이 아닌 ‘머무르는 관광’으로 전환을 꾀한다.

농업 분야에서는 스마트농업 전환이 본격화된다.

군은 스마트농업 개발지구 조성 사업을 통해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청년 농업인 창업 지원시설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이는 고령화와 인력 부족이라는 농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청년층의 농업 진입 장벽을 낮추는 핵심 정책으로 평가된다.

특히 아열대 작물과 특화 작목을 중심으로 한 실증·연구 기반을 강화해 장성 농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국립 아열대작물 실증센터와

의 연계를 통해 기술 개발부터 판로 개척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목표다.

생활SOC 확충과 복지 강화 역시 새해 군정의 중요한 축이다.

군은 예산 6000억원 시대를 맞아 군민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사업에 투자를 집중한다. 출산·보육·교육 지원은 물론 어르신 이동권 보장,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 체육시설 개선 등이 포함된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고령층을 위한 교통·복지 서비스도 강화한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농촌 공간 재생 사업도 속도를 낸다. 농촌협약 사업을 통해 장성읍과 삼계면 등 농촌 중심지에 문화·복지·생활 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낙후된 농촌 지역의 경주 여건을 개선한다.

이는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고 주민 삶의 만족도를 높

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군은 이러한 사업이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장성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과 안전 분야에서도 변화가 이어진다. 재해 위험 개선 사업과 교통 인프라 정비, 생활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주민 안전을 강화한다. 동시에 산림과 자연 자원을 활용한 문화·체험 시설을 확충해 환경 보전과 지역 활성을 함께 꾀한다.

물류와 경제 인프라 확충도 주목된다. 대규모 물류 시설 유치를 통해 지역 일자리를 늘리고, 광역 물류망과의 연계를 강화해 장성의 산업 점진성을 높인다.

이는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한중 군수는 “지금의 선택이 장성의 10년, 20년을 좌우한다”며 “군민과 함께 담을 준비한 변화가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이항범 기자 lhb6699@gwangnam.co.kr

장흥, 군민 삶의 질 향상·지방소멸 대응 청사진 확정

문화·관광, 농·수·축산업 등
5개 분야별 활성화 시책 추진

장흥군이 올해 지속 가능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확정했다. 군은 최근 청사 대회의실에서 ‘2026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김성 군수를 비롯해 실과소장, 팀장이 참석했으며, 전년도 업무 성과와 2026년 중점 추진사항 및 주요 시책을 공유했다.

2026년도 예산은 총 5627억원으로 전년 대비 269억원(5.04%) 증가했으며, 농업·해양수산, 사회복지, 문화관광 분야의 재원 배분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군은 올해 문화·관광, 농·수·축산업 육성, 지방소멸 대응, 맞춤형 복지, 소통 행정이라는 5개 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활성화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문화·문학·역사 자원을 아우르는 체류형 관광거점 구축을 위해 뽕배움zip 콘텐츠 확충, 편백숲 우드랜드 생태숲길 조성, 전통시장 보립사 정



장흥군은 최근 청사 대회의실에서 ‘2026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비사업 등을 추진한다. 농수축산업 육성 분야에서는 친환경 농업 내실화, 지역별·품목별 단계적 집단지화, 친환경 축산환경 조성, 스마트 양식 기반 구축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 농·수·축산업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소멸 대응 분야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확대에 대비한 조례 제정 등 사

전 준비, 청년 커뮤니티센터 조성, 바이오 식품산업단지 분양률 80% 달성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맞춤형 복지 분야에서는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대한 운영체계 구축과 더불어 아동친화도시 재인증 추진,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등 아동·청소년·어르신·취약계층 모두를 아우르

는 복지 행정을 실현할 계획이다.

김성 군수는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장흥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

고흥 도양읍, 체류형 관광 도시재생 본격화 군, 행정협의회 개최…녹동항 드론쇼 연계 등 특화사업 논의

고흥 도양읍 도시재생이 첫발을 뗀다.

20일 고흥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 8층 홀에서 도양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관계 부서 및 유관기관과 함께 사업 방향과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행정협의회는 도양읍 봉암리 일원 약 18만㎡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으로, 국토교통부 지역특화재생 공모를 대비해 부서 간 협업과 정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고흥군 건설과 도시재생팀과 도시계획팀 등 관계 부서와 고흥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용역 수행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계획안에는 ‘하늘과 바다를 잇는 도시, 도양읍’을 비전으로 안전한 체류형 관광환경 조성, 정보·연결·거점 인프라 구축, 주민 참여 기반의 공간 활성화 전략 등이 담겼다. 특히 녹동항 드론쇼와 연계한 드론 체험시설 조성, 낚시객 라운지 구축, 가상 현실(VR) 체험관과 연계한 관광안내소 개

선, 자전거 대여 시스템 도입, 주차타워와 연계한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 역사 자원을 잇는 보행환경 정비, 쉼터공원 플리마켓 활성화 등 도양읍의 지역 자산을 활용한 특화사업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참석 부서들은 각 사업의 실행 가능성과 부서별 연계사업, 향후 국·도비 공모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향후 계획 보완과 협업 체계 구축에 뜻을 모았다.

군은 이번 행정협의회 결과를 반영해 계획안을 보완한 뒤 주민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 법정 절차를 거쳐 2026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지역특화재생 공모에 신청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행정협의회는 도양읍 도시재생사업을 군 전체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다”며 “주민 의견과 부서 간 협업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곡성물, 딸기 최대 20% 할인
내일까지…구매 이벤트 행사

곡성군은 새해를 맞아 제철 과일 소비를 늘리고 지역 농가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 ‘곡성물’에서 신선편기 기획전을 진행한다.

기획전은 22일까지 곡성농협, 곡성멜론㈜, 로와농장이 참여해 곡성 지역에서 생산된 딸기를 소비자에게 선보인다.

행사 기간 동안 판매 상품은 최대 2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된다. 판매 품목은 곡성물 메인 화면과 기획전 전용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매 이벤트도 함께 마련됐다. 3월 31일까지 곡성물에서 상품을 구매할 뒤 후기를 작성하면 리부 유형에 따라 할인 쿠폰이 지급된다.

곡성물 카카오톡 채널을 친구 추가하고 회원가입을 완료한 신규 이용자에게는 2000원 할인 쿠폰이 지급된다. 모든 이벤트는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곡성물 관계자는 “제철을 맞은 곡성 딸기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기 위해 기획전을 준비했다. 곡성물을 통해 지역 농가의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꾸준히 소개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유빈 기자

순천 여행하며 정원·갯벌서 치유 경험한다

정원·동천·순천만 연결
‘머물며 회복하는 도시’ 구축

순천시가 스쳐 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머물며 회복하는 도시로서 가치를 높이고 있다.

20일 순천시에 따르면 320억원 규모의 갯벌치유관광 플랫폼을 올해 착공해 정원·동천·순천만을 잇는 생태축 위에 전국 최초의 치유 거점을 만든다.

체류형 관광의 중심에는 마을스테이 ‘실랑계’가 있다. 올해 실랑계는 숙박·체험·치유·미식을 한 번에 즐기는 순천형 치유 여행 브랜드로 확장된다. 여행자는 마을에 머물며 로컬 식당을 이용하고, 골목을 걷고, 정원과 갯벌에서 치유를 경험한다. 순천에서의 여행은 이제 하루짜리 방문이 아니라 며칠을 머무는 시간이 된다.

국가정원에 머물던 위케이션도 도심의 로까지 넓어진다. 카페와 지역서점, 복합 문화공간, 공유공간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과 연결돼 숙박과 공유오피스, 체험·관광이 함께 어우러진다.



순천시가 스쳐 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머물며 회복하는 도시로서 가치를 높이고 있다. 사진은 남파랑길을 걷는 여행객들.

관광은 이제 따로 즐기는 행사가 아니라 머무는 시간을 늘리는 하나의 여정으로 바뀌고 있다. 푸드앤아트페스티벌과 비어페스타, 동천 아광축제에 숙박과 연계해 낮과 밤을 잇는 도시형 축제도 운영되고, 순천미식주간과 음식 명인 제도는 지역의 식문화를 순천만의 브랜드로 끌어올린다.

올해 순천은 K-치유, K-미식, K-콘텐츠를 결합한 글로벌 관광으로 확장한다. 다국어 안내, 교통·숙박 서비스 개선, 외국인 친화 음식점 지정제 도입으로 외국

인 관광객이 편하게 머무를 수 있는 여건도 갖춰진다. 빠르게 보고 떠나는 한국 여행이 아니라, 천천히 머물며 회복하는 한국의 치유도시로 순천은 새로운 위치를 만들어 가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이 끌어들이는 것은 더 많은 방문객이 아니라, 더 오래 머무는 사람들의 시간이다”며 “순천은 관광지를 넘어 살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자연휴양림



산림박물관

광양, 겨울 웰니스 관광 콘텐츠 ‘인기’

산림박물관·목재문화체험장 등 특별한 경험 제공

백운산자연휴양림이 겨울철을 맞아 숙박과 치유, 체험이 어우러진 체류형 숲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일 광양시에 따르면 백운산자연휴양림은 치유의 숲과 산림박물관, 목재문화체험장 등 다양한 산림문화 공간과 숲속 머무는 사람들의 시간이다”며 “순천은 관광지를 넘어 살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치유의숲에서는 명상과 요가, 족욕, 아로마테라피 등 숲을 활용한 치유프로그램이 운영되며 돼지꿈길·봉황돌움길·숫가마뱀길 등으로 조성된 치유 숲길을 따라 겨울 숲을 걸으며 사색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백운산산림박물관은 숲과 자연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공간으로, 다양한 전시와 이색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숲 생태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목재문화체험장에서는 목공예를 통해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어보는 체험이 가능하며, 생태숲과 황토길에서는 산책을 통해 몸의 긴장을 풀고 자연 속 휴식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숲속의 집과 개빈하우스, 오토캠핑장 등 다양한 숙박시설에서는 겨울 숲의 고요함 속에서 머무는 체류형 관광이 가능하다.

밤에는 숲의 정적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이른 아침에는 자연의 소리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지난해 백운산자연휴양림을 찾은 이용자는 숙박시설과 산림문화·치유시설을 포함해 총 15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김귀진 기자 kkkjin@